

‘K-푸드’ 열풍… 전남 농수산물 수출 ‘역대 최대’

무협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전년비 김 38.5%·미역 129% 증가
전남 수출증가율 22.5% ‘전국 2위’
광주, 반도체 부진 등 여파 2.2% ↓

‘K-푸드’ 열풍으로 지난달 김과 미역 등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농림수산물 수출은 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월 수출 실적을 올렸다. 김과 전복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8.5%, 8.4% 증가했으며 미역

은 무려 129% 급증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전체 수출액은 53억 달러로, 지난 3월에 비해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전남이 20% 이상 증가율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반면 광주는 반도체 등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 증가율은 14.9%로 전국 증가율(13.8%)을 웃돌았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주요국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반등했다.

광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한 14억 달러, 전남은 22.5%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은 농수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냉장고 수출 부진으로 감소했다.

광주·전남 수입액은 광주의 경우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전남의 경우 원유·유연탄·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해 4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3% 증가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11억6000만 달러로 광주와 전남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달(9억5000만 달러)에 비해 개선됐다. 광주는 8억6000만 달러, 전남은 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지역별로 광주는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해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했지만, 반도체·냉장고 등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 증가율이 하락했다. 10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43.3%, 디젤엔진 차량이 103.8% 등 호조를 기록하며 수출액 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최대 수요처인 싱가포르 수출이 20% 이상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7.0% 하락했다. 냉장고도 호주·캐나다 등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미국 시장 부진으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0.5% 감소했다.

전남은 모든 산업에 걸쳐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보였다. 공산품은 17.2%, 광산물은 35.2% 증가했다. 전남 10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선박 등 품목 수출은 증가했으나 철강판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선박 수출액은 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8.4% 올랐으며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개선 등으로 12억 2000만달러를 기록, 36.1% 증가했다. 철강판은 글로벌 시장 부진, 수출 단가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은 4.4% 감소한 6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여름휴가철 ‘선글라스’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행사장에서 다가오는 여름 바캉스철을 앞두고 선글라스 시즌 팝업매장을 7월말까지 운영한다. 이번 팝업매장에는 여름철 패션아이템으로도, 자외선 보호에도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선글라스 제품들이 준비돼 있다. 행사 기간 중 페라가모, 듀폰, 비비안웨스트우드, 베디베로 등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을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무협·광주시,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성과

지역 중기 25개사 지원 16만5천불 규모 수출 실적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와 함께 지난 1년간 ‘2023 온라인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해 16만불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무협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 25개사 대상으로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수출마케팅 준비 및 바이어 발굴,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전 세계의 잠재 바이어의 발굴과 1대1 상담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거래제안서 디자인 및 바이어에게 자동 발송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바이어 문의 수신 △유료 바이어 발굴 및 제품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진행 △추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이 이

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중 21개사가 총 83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96만7000달러 이상 수출 상담, 5개사 50만불 규모 MOU 체결, 5개사 샘플 6건, 9개사 21건 16만5000불 규모 수출 성사 성과를 냈다.

삼푸 제조 기업인 아리뷔에는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 11월 홍콩 전시회 참여 전, 해당 사업을 통해 맞춤형 홍보메일을 만들어 잠재바이어들에게 발송 및 발굴했고 이중 중국 바이어 2인은 1대1 사전 화상상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홍콩 전시회에서 추가 미팅이 이뤄졌다.

간편식·양념육 취급업체 태현푸드는 대표가 국내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홍콩·베트남 바이어와 각각 10만불 규모 MOU 체결에 성공했다.

무협 광주전남본부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연 최소 50만 원 상당의 온라인수출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원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EC 21 플랫폼을 지속 이용토록 하고, 지난해 발굴한 바이어들과 수출성사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의 관리와 컨설팅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신규 기업은 6월 중순까지 참가 기업을 선정해 올해에는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광주시,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과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TP·연합자산관리, 투자생태계 활성화 ‘맞손’

지역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지역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지원과 시리즈 B 이상 단계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합자산관리는 정책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출자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시리즈 B 이상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 진행 및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재정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광주지역 유망 중소·중견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지역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 출자 예산을 통해 광주 특화 산업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2차 펀드 조성을 완료했으며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창업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로 조성 중이다. 또 지속적인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조성된 인공지능 2차펀드, 창업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들과 협업하고 있어 연합자산관리



와 함께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두일 연합자산관리 CR그룹장은 “광주는 인공지능 대표도시이자 미래차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한 축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의 유망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승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투자 유치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 단계별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는 물론 코스닥 상장 및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매년 지역 내 코스닥 상장 기업 배출 지원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신세계, ‘텐텐문방구’ 팝업 스토어 운영

다음달 2일까지 지하 1층 캐릭터 디자인 상품 등 선보

광주신세계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폰꾸’(핸드폰 꾸미기) 등을 위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텐텐문방구’ 팝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다양한 디자인 소품과 아이디어 상품 등을 선보인다.

이번 팝업에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디즈니 캐릭터부터 스누피로 유명한 ‘피너츠’, ‘워너브라더스’의 파워퍼프걸,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산리오’, ‘최고심’, ‘괭철이’ 등 21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팝업 현장에서는 작고 귀여운 미니어처 소품들과 가차(뽑기 기계)에서 뽑은 캐릭터 장난감을 모아 투명 파우치에 넣어 키링 형태로 만드는 가차파우치 체험존을 운영한다.

또 귀여운 패턴으로 구성된 포토월에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특히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한 고객에게는 추가로 아기자기한 디자인 스티커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평일 한정으로 스누피



광주신세계가 다음달 2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텐텐문방구’ 팝업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스터디 플래너와 피너츠 가로형 스터디 플래너를 1000원에 판매하는 특가 상품 판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같은 기간 평일 특가로 한정상품 50% 할인 혜택과 텐텐문방구 팝업스토어에서 구매 시 텐바이텐 온라인 쿠폰을 증정한다.

주말에는 피너츠 장바구니를 과격적인 특가로 300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F&B 5000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패션팀장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요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텐텐문방구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